

다시 하나님께

성경 사사기 16:23-31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은혜의 찬양 214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예요
사랑한다 아들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노라



2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찬송가 365장)

-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 2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 읽기 사사기 16:23-31

-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꺼 의지하고
-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본문 배경

사사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열두 번째 사사인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삶을 자신의 욕심과 충동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특히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그의 영적·육적 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고, 머리카락이 잘린 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멧돌을 돌리는 종으로 전락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된 삼손은 마지막 순간, 다곤 신전에서 조롱당하던 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는 늦었지만 진심 어린 회개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힘을 허락하셨고, 삼손은 성전 기둥을 밀어 블레셋의 귀족들과 함께 성전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으면서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삿 16:30)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이 사건은 삼손의 실패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블레셋의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진심으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처럼 늦은 회개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블레셋 사람들은 왜 모여서 잔치를 벌였나요?(23절)

답 삼손을 넘겨준 자기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은 후, 그 모든 승리가 자기들의 신 다곤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높이며 큰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를 보여 줍니다. 삼손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블레셋의 교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사를 조롱함으로써, 삼손 개인이 아니라 삼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까지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승리는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은 반드시 무너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줍니다.

2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28절)

답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설 삼손은 뒤늦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연약함과 실패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실패의 끝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적용

- 삼손은 자신을 의지하다 넘어졌어요. 삼손처럼 나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 실패한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나요?

말씀 암송

4-1 삼손이여호와께

사사기 16장 28절

작곡 조미진

G(add9) C/G G(add9) C/G G(add9) C/G G(add9) F/G

삼손이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호와-여구하옵나니-나를

5 CM7 D/C Bm7 Em7 Am7 C(add9)/D G(add9) F/G

생각하옵소서-하나님이여-구-하옵나니 이번만

9 CM7 B7 Em7 Am7 G(add9)/B B7/D# Em7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두 눈을-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13 Am7 A/C# CM7/D C/D CM7 G/B Am7 C(add9)/D G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하고 사사기 십-육장 이십팔절 아멘!



가정에배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약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정을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